

■ 붕괴 치달는 외환시장 ... 전문가들 긴급 제언

환율 상승폭 과도 ... 시장 체질개선 나서야

글로벌 신용경색 심화 ... 환율 상승 불가피

사소한 악재에도 민감해 ... 급락 가능성도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간 200원 이상 폭등하면서 외환시장이 사실상 '붕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외국인의 주식 투매와 경상수지 적자로 달러화가 부족해 가는데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불안감으로 달러화 매집세가 폭주하고 있다.

◇ 환율 폭등 ... 달러화 매물 실종, 北 미시일도 불안감 키워 = 미국과 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8일 환율이 급등했다. 서울 외환시장은 달러화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유럽발 금융위기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인 33조 원 가량 주식을 순매

도하고 있고 무역수지가 9개월간 14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달러화 수요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도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됐다. 정부가 통상적인 혼란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평소에는 북한 소식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 패닉상태이기 때문에 사소한 악재조차도 극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전문가 "상승폭 과도 - 시스템 개선 필요" =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환율 상승폭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루 현물환 거래량이 50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환율이 폭등하는 것은 지나친 율립 현상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일 이후 7일까지 환율이 급등세를 보인 3일간 현물환 거래량은 하루 평균 55억7천만 달러로 지난달의 하루평균 80억1천만 달러에 비해 24억7천만 달러 급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이 미국 달러화의 움직임에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점이 율립현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 참가기관 확대와 거래 통화 다양화 등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외환당국은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 개입)을 통해 환율 폭등을 제어하되 무분별한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상승 율립 지속될 급락 가능성도" = 전문가들은 그러나 환율의 움직임이 이미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었고 전

망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글로벌 신용경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환율이 당분간 오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동완 국제금융센터 상황정보실장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리보금리가 급등하는 등 자금시장의 경색이 워낙 악화돼 있어 외환시장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며 "서로가 상대방의 리스크를 믿지 못하는 극도의 불신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성진경 시장전략팀장은 "이미 통제선을 넘었다"며 "글로벌 신용경색의 불안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당분간 불안한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완 상황정보실장은 "거래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약간의 외부 충격에도 환율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순간 확 급락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용어풀이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손실 규모가 급증 한해 1조2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환변동보험과 환해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변동 보험=수출 거래와 수출용 원자재 수입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에 의해 기업체가 입게 될 손실을 담보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중소기업의 중요한 환리스크 관리수단이다. 키코와 유사해 제2의 키코라고 불리며 지난 2000년부터 수출보험공사가 판매하고 있다.

▲환해지 상품=투자대상국이나 수출국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막아주는 환해지 상품으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키코(KIKO)가 대표적이다. 키코는 은행에서 환위험관리 전문인력이나 지식이 없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한 환율방어 상품이다. 환율이 미리 정한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 사이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경우, 약정 금액을 약정 환율로 안정되게 팔 수 있다. 하지만 환율이 상한선을 넘을 경우 기업은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증시 44조 '증발'

어제 하루 지수 급락 여파

글로벌 금융위기와 환율 폭등으로 8일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이날 하루 44조여 원이 증발하는 등 유례하지 못한 각종 기록들이 속출했다.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물론, 1,279.08로 마감한 2006년 7월26일 이후 2년3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등락을 기준으로 연중 2번째, 등락폭으로는 사상 6번째이다.

30.48포인트(7.58%)나 폭락하며 371.47로 마감한 코스닥지수 역시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370.77을 기록한 2004년 12월28일 이후 3년10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스닥지수 역시 올해 들어 등락을 기준으로 2번째, 등락폭 기준으로 4번째로 하락폭이 깊었다.

시가총액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전날 756조2천58억원에서 711조4천48억원으로 줄어 이날 하루에만 44조8천110억원이 날아갔다.

1천51조7천631억원을 기록했던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340조3천583억원이 날아간 셈이다. /연합뉴스

편드여 안녕?

시장 악화...투자자들 이탈 가속화

두달 새 계좌 수 30만개 이상 줄어

7월에 이어 8월에도 주식형펀드의 계좌수 감소세가 이어져 두달 간 30만 계좌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운용사 가운데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전체 감소분의 과반을 차지하고, 판매사 중에는 국민은행 계좌가 전체 감소분의 30% 수준에 달하는 등 펀드업계를 대표하는 판매은행과 자산운용사의 고객 이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8일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판매사 통계를 중심으로 8월말 현재 국내와 해외를 포함한 주식형펀드 계좌 수는 1천784만5천755개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의 1천817만171개에 비해 무려 32만4천416개(1.78%)가 감소했다.

운용사 통계로는 지난 두달 간 29만7천694개의 계좌가 감소했는데, 이처럼 판매사와 운용사의 통계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해지 절차의 시차에 따른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업계는 이 같은 감소세가 월간 기준으로 2006년 말 한차례 감소세를 보인 이후 처음이며, 무엇보다 두달 연속 감소세를 보임으로써 자칫 감소현상이 추세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운용사 가운데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무려 15만 5천593개의 계좌가 감소했는데, 이는 운용업계 전체 감소분의 52.27%에 달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계좌수가 다른 운용사에 비해 압도적이어서 이탈 계좌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8월말 현재 전체 계좌수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 계좌의 비중이 41.58%인 점을 고려하면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이탈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못 믿을 投信

입론 주식매도 자제

하루 1천억 팔아 치워

주식 매도를 자제하겠다고던 투신권이 다른 기관보다 더 열심히 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의 불신을 키웠다.

8일 투신은 1천737억원의 순매도로 기관의 매도를 주도했다.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프로그램매매를 감안해도 이날 투신의 순매도 금액은 1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은행과 종금이 각각 184억원, 53억원의 순매도에 그치고 연기금과 보험, 증권이 각각 1천158억원, 37억원, 29억원을 순매수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날 자산운용사들이 긴급 사장단회의를 열어 과도한 주식매도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투신이 대규모 매물을 내놔 전날의 '선언'을 무색했다.

투신은 코스피지수가 1,500을 회복했다 1,300선 초반까지 수직 낙하한 지난달 25일 이후 이날까지 8거래일 동안에 전날 하루만 순매수했을 뿐 나머지 거래일엔 모두 순매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대기업 달러 매도 늦추면 환율 급락엔 손실 가능성"

재정부 국장 밝혀...수석 "국내 시장 충격 제한적"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8일 "대기업들이 수출대금 매도를 계속 미루다가는 상당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날 과천청사 기자회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처럼 급락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 국장은 "대기업이 수출 대금을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나라 전체에 안 좋고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업들을 만나서 달러 매도를 늦추는 것을 시정해 달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딜링과 관련한 불법적인 움직임을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최 국장은 덧붙였다.

그는 "오늘 환율 움직임은 시장 참가

자들마저 지나친 과열이라고 생각할 정도"라면서 "글로벌 증시 하락과 외화 유동성 부족 우려에다 몇 가지 기술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환 유동성 공급, 금매도 급지를 포함한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 등 금융위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들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간담을 통해 "한국경제가 외부상황의 악화로 둔화하고 있지만, 국제유가와 상품,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안정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악화했던 경상수지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외화 모으기 나섰다'

8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외화모으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은행 측은 외화유동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행운의 2달러 지폐를 포함한 외화를 예금하거나 환전해준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진행하며 외화예금 고객에게는 환율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연합뉴스

로또 1등 당첨금 409억 안찾아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 4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부 내성권(한나라당) 의원이 8일 복권위원회 사무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로또복권 추첨이 시작된 2002년 12월9일 이후 지난달말까지 지급 기한 내에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건수가 2천 839만건이고 금액으로는 2천713억원에 달했다.

특히 1등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놓쳐버린 비운의 주인공은 모두 16명이었으며 금액으로는 409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25억원의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

2등에 당첨된 뒤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128명, 금액으로는 86억원이었다. /연합뉴스

펀드 투자자 민원 '붓물'

상반기 82건 ... 작년 3분기 이후 가입자 손실 커져

주식시장이 올해 들어 장기침체 국면을 보이면서 주식매매나 주식형펀드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3년6개월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된 펀드 등의 신박상품 관련민원이 총 375건으로 집계됐다.

신박상품관련 민원은 ▲2005년 77건 ▲2006년 100건 ▲2007년 11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엔 82건으로 작년 동기(44건)의 배에 육박했다. 민원이 급증한 것은 국내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펀드에 가입했던 작년 3분기부터다.

분기별로 보면 작년 2분기에 17건이던 신박상품 관련 민원이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34건, 38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40건, 42건에 달했다. /연합뉴스

모건스탠리 "韓銀 내년 1월 금리 인하"

모건스탠리는 8일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금리동결을 유지했다가 내년 1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에서 3.8%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년에 총 1.25% 포인트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나 첫 금리인하 시기는 내년 1월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또 "기업

들이 원화까지 하락과 유동성 부족 등으로 설비투자를 줄여 내수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한국의 내수는 내년 말까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건스탠리는 그러나 "한국 수출업체들은 원화약세 등으로 경쟁력이 강화돼 중국 내수수요에 가장 큰 공급업자가 될 전망이어서 한국의 수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며 "경상수지도 올해 4분기부터 흑자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가구 이동전화요금 월 평균 9만원

해마다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가구당 이동전화요금은 매년 늘어 월 평균 9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김금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이동전화요금은 9만1천894원으로 1년전(8만5천393원)에 비해 6천원 가량 높아졌다.

불과 4년전인 2003년(7만2천180원)보다는 1만9천원이 늘어난 것이

다. 2004년에는 7만8천644원, 2005년에는 8만1천477원이었다.

반면 일반 전화요금은 2003년 2만7천377원에서 지난해 1만8천387원으로 떨어져 처음으로 2만원을 밑돌았다.

평균 가구소득(367만5천431원)에서 차지하는 가계 통신비는 5.9%(13만8천458원)로 2004년 6.5%, 2005년 6.3%, 2006년 6.1%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액수로는 따지면 4년전(2003년) 12만6천770원보다 1만2천원 가량 높아진 셈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제이앤비컨설팅	금융생명 콜센터/대출센터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10	062-224-5863
이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서부고객센터(상담사/정규직)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10	062-601-7213
글로벌광통신	회계, 경리 담당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0/10	062-973-6114
미너우장	소필물 고객상담 및 cs업무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1	062-376-3220
백일디자인	맥 디자이너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3	062-676-0129
지비씨 주식회사	컴퓨터조립 및 소필물 운영 정규직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0/13	062-350-6556
EA샵	매장관리, 판매 및 영업사원, 재고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4	062-529-0311
하이브정보통신	정보통신 설비 및 네트워크 공사업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14	062-382-1618
광성계전	장부정리 및 (CAD) 도면정리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14	062-573-2188
유진시스템	기술지원팀/영업팀/경리사무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5	062-383-1108
코엔텍	건축기사 경력직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0/15	062-515-4666
쓰리에스텍	경력업무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15	062-973-5501
민성	질식공구 및 공장 소모자재 납품 및 영업관리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15	062-953-8318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SK Telecom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료 50%할인
 학교끼리 T타임 할인제도